

2018년 10월 4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장 후반 매물 출회되며 상승폭 축소 로레타 메스터 총재 “금융규제 완화 확대는 실수가 될 수 있다”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이탈리아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견조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은행주가 상승 주도. 더불어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중소형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1% 가까이 상승한 점도 특징. 그러나 장 막판 메스터 총재가 “금융규제 완화가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고 언급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 축소(다우 +0.25%, 나스닥 +0.32%, S&P500 +0.07%, 러셀 2000 +0.92%)

미 증시는 ①이탈리아 우려 완화 ② 금융주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이탈리아가 2019 년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4%로 설정한 이후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급등 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음. 특히 EU가 이탈리아 예산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소식과 이탈리아 부총리도 절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격화되는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가 비록 2019년에는 2.4%를 확정하겠지만, 2020년(2.1%), 2021년(1.8%)에는 하향 조정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우려감 완화.

한편,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 했는데 이는 국채금리가 급등한 점과 연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켈스 연준 부의장이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은행 규제안이 수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 특히 자본 및 유동부문 규제에 적용되는 은행들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 이는 중소형 은행을 비롯해 많은 투자은행들이 규제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영향. 그러나 장 마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취해 온 중요한 정책을 되돌린다면 실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자 상승폭이 축소. 다만 메스터 총재도 “지방 은행들을 위한 규제 수정은 지지한다” 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09.57	-1.25	홍콩恒生	27,091.26	-0.13
KOSDAQ	794.99	-2.64	영국	7,510.28	+0.48
DOW	26,828.39	+0.20	독일	12,287.58	휴장
NASDAQ	8,025.09	+0.32	프랑스	5,491.40	+0.43
S&P 500	2,925.51	+0.07	스페인	9,361.10	+0.60
상하이종합	2,821.35	휴장	그리스	666.84	-2.10
일본	24,110.96	-0.66	이탈리아	20,736.01	+0.8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산업재 상승

애플(+1.22%)은 팀 쿡 CEO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애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페이스북(+1.95%)은 이번 해킹 사태의 피해가 크지 않고, 중요 개인정보는 해킹 당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JP모건(+0.94%), BOA(+1.42%), 씨티그룹(+0.78%) 등 금융주는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지방은행 ETF(+2.42%)의 상승폭이 컸다. 이는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메스터 총재도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보잉(+1.53%)과 캐터필라(+2.20%)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불공정 무역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로 발표하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테슬라(-2.07%)는 무디스가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수 있다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아마존(-0.94%)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그동안 지급하던 일부 혜택을 줄인다고 발표하자 매출이 출회되었다. 한편, 이베이(+0.58%)가 아마존에 대해 판매 업체를 중간에서 가로채지 말라고 발표하는 등 경쟁 관련 우려도 부담이었다. 월마트(-1.14%), 코스트코(-1.33%) 등은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44%	대형 가치주 ETF	+0.09%
에너지섹터 ETF	+1.10%	중형 가치주 ETF	+0.13%
소매업체 ETF	+0.18%	소형 가치주 ETF	+0.90%
금융섹터 ETF	+0.94%	배당주 ETF	-0.21%
기술섹터 ETF	+0.30%	변동성 ETF	-0.83%
소셜 미디어업체 ETF	+0.77%	대형 성장주 ETF	+0.04%
인터넷업체 ETF	+0.66%	중형 성장주 ETF	+0.18%
리츠업체 ETF	-1.15%	소형 성장주 ETF	+0.86%
주택건설업체 ETF	-0.37%	신흥국 고배당 ETF	-0.88%
바이오섹터 ETF	+0.7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99%
헬스케어 ETF	-0.19%	하이일드 ETF	-0.17%
곡물 ETF	-1.04%	물가연동채 ETF	-0.48%
반도체 ETF	+0.38%	Long/short ETF	-0.9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74.55	+0.82%	+2.21%	+5.31%
소재	365.75	-0.76%	-0.93%	-1.37%
산업재	669.25	+0.45%	+1.62%	+3.02%
경기소비재	918.97	-0.43%	-1.65%	-0.25%
필수소비재	552.05	-1.06%	-0.49%	-0.84%
헬스케어	1,103.66	-0.23%	+0.99%	+3.49%
금융	463.73	+0.82%	-0.20%	-1.74%
IT	1,332.87	+0.34%	+1.79%	+2.26%
커뮤니케이션	160.99	+0.27%	+0.68%	+4.86%
유틸리티	266.59	-1.23%	+2.22%	-2.92%
부동산	197.62	-0.98%	-0.69%	-4.8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등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1.11% MSCI 신흥지수는 0.8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휴장이었으며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4.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상승 했으나 금융주를 비롯해 일부 업종과 개별 기업 관련 이슈가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다. 오히려 이보다 완화된 이탈리아 이슈, 상승한 국제유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화요일(2 일) 한국 증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 우려감이 완화되었다. 이에 엔화와 금, 미 국채가 약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향후 재정 적자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국제유가가 장 초반 재고 증가 및 사우디, 러시아 공급 증가 우려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란 제재 관련 이슈와 수요 증가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간 점도 긍정적이다.

또한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 또한 둔화된 경제지표 결과를 감안 인민은행의 기준을 인하 등 정책적인 대응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요인을 감안하면 오늘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대감이 높아 반등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지속

미국 9 월 APD 민간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자수는 전월(16 만 8 천건) 보다 개선된 23 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18 만 7 천건)를 상회하는 등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9 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8.5)이나 예상치(58.1) 보다 개선된 61.6 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고용지수(56.7→62.4), 신규수주 지수(60.4→61.6) 등이 이를 주도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국채금리 급등

국제유가는 EIA가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재고가 797.5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상승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공급량을 높일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상승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EIA 원유재고 보고서에서 정제유가 175만 배럴 감소하고 가솔린 재고가 45.9만 배럴 감소 하는 등 수요 증가 기대감이 높아진 데 힘입은 결과였다. 더불어 이란에 대한 2차 제재(11월 4일)를 앞두고 관련 우려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 이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가 이탈리아 우려감이 완화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여파로 약세로 전환했다. 엔화는 이탈리아 우려감 완화에 힘입어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달러 대비 0.66% 약세를 보이며 달러당 114엔을 상회했다. 한편, 멕시코 폐소화는 전일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 건설을 언급한 이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역외 위안화 환율을 비롯해 대부분의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 및 이탈리아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일간 상승폭이 트럼프 당선 이후 최대치인 11bp 상승하기도 했다. 한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단기적으로 성장 펀더멘털이 더욱 강해졌고 인플레이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경제 성장은 견조하다” 라고 언급하는 등 대부분의 연은 총재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 위축으로 하락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76.41	+1.57	+6.76	Dollar Index	95.790	+0.30	+1.70
브렌트유	86.29	+1.76	+6.81	EUR/USD	1.1505	-0.37	-1.99
금	1,202.90	-0.34	+0.32	USD/JPY	114.46	+0.71	+1.53
은	14.670	-0.16	+1.87	GBP/USD	1.2968	-0.08	-1.51
알루미늄	2,206.00	+4.15	+6.83	USD/CHF	0.9912	+0.74	+2.60
전기동	6,267.00	-0.21	-0.24	AUD/USD	0.7115	-1.02	-1.97
아연	2,650.00	-0.56	+4.33	USD/CAD	1.2859	+0.28	-1.23
옥수수	364.75	-0.75	+0.48	USD/BRL	3.8881	-1.34	-3.60
밀	515.25	-0.77	-0.43	USD/CNH	6.8899	+0.06	+0.15
대두	861.50	-0.52	+1.35	USD/KRW	1119.20	+0.67	-0.11
커피	106.60	-0.98	+9.05	USD/KRW NDF1M	1124.35	+0.59	+0.86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170	+10.69	+12.20	스페인	1.534	-0.30	+1.30
한국	2.375	-0.50	-5.50	포르투갈	1.888	-0.70	-0.10
일본	0.141	+1.10	+1.50	그리스	4.379	+10.20	+35.40
독일	0.475	+5.30	-5.10	이탈리아	3.310	-13.80	+45.40